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남자’가 등장하여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한다.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터리이다.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강한 하인을 빌린다.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한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청혼하고, ‘여자’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란다.

남자 : 정신 좀 드십니까?

여자 : 여전해요.

남자 : (미소를 짓고) 익숙해지면 좀 나를 겁니다.

여자 :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리라곤 꿈도 못 꿔요. 전보에 알려 주신 대로 찾아왔더니……, 이걸 너무 어마어마한 저택이잖겠어요? 문 앞에서 저는요, 한참이나 망설였어요.

남자 : 어려워 마시고 그냥 들어오실걸.

여자 : 아뇨. 황홀해서 망설였던 거예요.

남자 : (미소를 짓고) 아, 그랬어요?

여자 : 네. 당신의 전보를 받았을 때요, 저의 어머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어서 가 봐라. 가 봐서 빈털터리 같거든 아예 되돌아보고 부자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

남자 : 그래 당신은 뭐라 했습니까?

여자 : 알았어요, 어머니. 오른손을 들고서 그렇게 대답했죠.

남자 : 내 원 참! 오른손을 들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셨군요?

여자 : 그렇죠!

남자 : 그 잔에 물 좀 남았습니까?

여자 : 아뇨, 다 마셨는데요.

남자 : 유감입니다. 내 몫을 남기시지 않고서.

하인, 또다시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넥타이를 풀어낸다.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 힘껏 저항하지만 하인의 역센 힘을 당해 내지 못한다.

결국은 빼앗기고 하인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넥타이를 가지고 나간다. 여자는 두 남자의 다툼에 놀란다.

여자 : 왜들 그러시죠?

남자 :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다.)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여자 :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네에?

남자 :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깐요.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계면쩍은 듯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그건 그렇고요, 당신 어머니 꽤 재미난 분이시군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시키셨다는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우시든가…… 왜 그렇게 쳐다만 보십니까?

여자 : 넥타이를…….

남자 : 그것엔 관심 없습니다.

여자 : 왜 빼앗기셨죠? (옆에 와 부동자세로 서 있는 하인을 훑쳐보며) 그것도 난폭하게.

남자 : 그렇지요.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겐 난 전혀 관심 없어요. 오히려 당신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신지……

여자 : 하지만요, 저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남자 :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그야 되돌려 받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인에게 큰 소리로) 여봐, 가져 와! (묵묵부답한 하인. 까치발을 딛고 일어나서 그의 귀에 속삭인다.) 여봐! 그 가져간 것 오 분만 더 빌려주게.

하인 : (대답이 없다.)

남자 : 딱 오 분만 더. 사정해도 안 되겠나, 응?

하인 : (반응이 없다.)

남자 : 좋아, 좋다고.

여자 : 뭐래요, 하인이?

남자 : 네, 나더러 잘해 보라고 그러니까.

남자,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 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

남자 : 물론 그래요. (속상하다는 듯이)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 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속 좀 상합니다만, 그야 뭐 그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 보나 마나겠고…… 저어,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오 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오 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겠습니까? (남성 관객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려 착용하며)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 온 건지는.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 드리겠어요. 자아,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난 이만.

- 중략 -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 준다.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다.

남자 : 빌린 건 돌려 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웬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린다.) 덤,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여자 : 거기서 뭘 하시죠?

남자 : (계속 혼잣말처럼) 덤, 난 당신을 사랑해……

[중략 부분 줄거리]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한다. 그 사이 ‘하인’은 ‘남자’의 저고리를 빼앗아 간다. ‘남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며 ‘여자’에게 진심을 담아서 청혼한다.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여자 :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남자 :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지요.

여자 :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남자 : 내 것이라곤 없습니다.

여자 : (충격을 받는다.)

남자 : 모두 빌린 것들뿐이었지요. 저기 두동실 띠 있는 달님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하늬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머지도, 또 당신마저도……. (미소를 짓고) 잠시 빌린 겁니다.

여자 : 잠시 빌렸다고요?

남자 : 네, 그렇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는다. 그 구두발로 채널 듯 한 힘약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남자 :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여자 : …… 아, 어쩌면 좋아?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

여자 :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남자 : 글썽 그건……. (탁상 위의 사진들을 끌어 모아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보여 드립니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 장입니다. 젊을 때 한 장, 그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여자 : 이해 못하실 걸요, 어머니. (슬프고 낙담해서 천천히 사진들을 핸드백 속에 담는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 나간다.

남자 : 잠깐만요, 덤…….

여자 : (멈칫 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남자 :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여자 : (침묵.)

남자 :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 봐요.

여자 :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남자 :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깐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 주십시오. 덤, 이제 알겠어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남자 :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

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뭘
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 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
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
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시다. 오히려 빌
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
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
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 이강백, 「결혼」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 시제로 사건을 표현한다.
- ② 서술자가 묘사를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드러낸다.
- ③ 하인은 시간이 다 된 물건들을 회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남자와 갈등을 겪는다.
- ④ 여자는 '남자'를 만나기도 전에 저택만 보고도 황홀감을 느끼는 세속적 가치관을 가졌다.
- ⑤ 여자의 어머니는 결혼의 조건으로 재산 소유의 정도와 같은 외면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2. 남자가 ㉠과 같이 말한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한 안에 갚아야 하는 빌린 물건처럼 여자와 한 약속을 잘 지키겠다.
- ② 시간이 다하면 돌려줘야 하는 빌린 물건처럼 여자를 함부로 대하겠다.
- ③ 자기 물건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여자를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겠다.
- ④ 빌려서 사용한 고마움을 기억해 나중에 자신도 은혜를 베풀겠다.
- ⑤ 덤으로 얻은 물건처럼 여자와의 사랑을 행운으로 여기며 살겠다.

3. 윗글에 대한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습 활동]

이 작품은 단막극의 희곡입니다. 여러분이 연출가가 되어 윗글을 무대에서 공연한다고 가정할 때, 중점을 두어 연출하고 싶은 부분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 ① 저는 무대의 공간 설정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는 상태로 꾸며,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 저는 대사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관객에게 건네는 대사를 통해 관객을 증인으로 내세움으로써 주제 의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③ 저는 소품의 준비와 활용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특히 '남자'가 관객에게 직접 넥타이를 빌려 소품으로 사용함으로써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④ 저는 배우들의 동선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오는 하인을 뒷걸음질 치며 피하는 남자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물리적 폭력에 맞서는 대응 의지를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 ⑤ 저는 상황에 따른 인물의 표정, 어조 등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소유물이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는데 충격을 받아 슬프고 낙담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악의적인 느낌 없이 말하는 여자를 통해 변화하는 인물의 태도와 심리를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자 :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리라곤 꿈도 못 꿔죠. 전보에 알려 주신 대로 찾아왔더니……, 이걸 너무 어마어마한 저택이잖겠어요? 문 앞에서 저는요, 한참이나 망설였어요.

남자 : 어려워 마시고 그냥 들어오실걸.

여자 : 아뇨. 황홀해서 망설였던 거예요.

남자 : (미소를 짓고) 아, 그랬어요?

여자 : 네. 당신의 전보를 받았을 때요, 저희 어머니 말씀 하셨습니다. 얘야, 어서 가 봐라. 가 봐서 빈털터리 같거든 아예 되돌아오렴. 그러나 부자거든 꼭 붙들어 야 한다.

남자 : 그래 당신은 뭐라 했습니까?

여자 : 알았어요, 어머니. 오른손을 들고서 그렇게 대답했죠.

(나) 남자 : 내 것이라곤 없습니다.

여자 : (충격을 받는다.)

남자 : 모두 빌린 것들뿐이었지요. 저기 두둥실 떠 있는 달님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하늬바람도, 그리고 어찌면 여기 있는 나머지도, 또 당신마저도……. (미소를 짓고) 잠시 빌린 겁니다.

여자 : 잠시 빌렸다고요?

남자 : 네, 그렇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는다. 그 구두발로 차 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남자 :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여자 : …… 아, 어찌면 좋아?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

여자 :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남자 : 글썸 그건……. (탁상 위의 사진들을 끌어 모아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보여 드립니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사진 석 장입니다. 젊을 때 한 장, 그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할 겁니다.

여자 : 이해 못하실 걸요, 어머니. (①슬프고 낙담해서 천천히 사진들을 핸드백 속에 담는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전까지 걸어 나간다.

남자 : 잠깐만요, 덤…….

여자 : (②멈칫 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남자 :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여자 : (침묵.)

남자 :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 봐요.

여자 :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남자 :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줘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걸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단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셨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③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남자 :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게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④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 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단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다) 남자, 하인의 구두발에 걸어챌다.

⑤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여자 : 그만해요!

남자 :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여자 :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구 사랑하겠어요!

남자 :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둣발에 차이기 전에!
 여자 :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
 던데…….
 남자 : 자아, 빨리 갑시다!
 여자 : 네, 어서 가요!

- 이강백, 「결혼」

4. 위 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사건을 이끌어간다.
- ②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 ③ 현재진행형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 ④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⑤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5. (다)에서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수락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자의 재산이 모두 빌린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 ② 물질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남자와 같기 때문이다.
- ③ 남자의 재산이 다시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④ 자신을 사랑하겠다는 남자에게 진실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 ⑤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같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6. 위 글의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이강백의 '결혼'은 실험적인 기법을 활용한 단막극이다. 결혼을 목적으로 맞선에 나온 여자를 속이는 가난한 사기꾼 남자의 해프닝을 그렸다. 결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주제는 사랑과 결혼에 국한되지 않는다.

- ① ㉠ ② ㉡
- ③ ㉢ ④ ㉣
- ⑤ ㉤

7. <보기>의 글쓴이가 (가)의 '여자'에게 할 충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이들은 아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비로부터, 비복(婢僕)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迷惑)한 일이 아니겠는가?

- 이곡, 「차마설」

- ① 결혼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다른 조건들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 ② 인간의 소유욕은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삶이 당연한 것입니다.
- ③ 자신의 삶을 어머니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주체적으로 살아야지요.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 ④ 물질의 소유가 사랑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주어야 하니까요.
- ⑤ 물질이 많은 것보다는 진실한 마음과 착한 심성이 더 중요합니다. 서로 믿음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8. 위 글을 연극으로 공연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자의 청혼에 갈등하는 여자의 심리가 잘 표현되도록 해야겠어.
- ② 남자가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이 가깝게 해야겠어.
- ③ 하인은 남자에게 위압감을 줄 정도로 엄격한 태도와 험악한 표정으로 연기해야겠어.
- ④ 진실을 깨달은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의 감정이 잘 전달되도록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말하도록 해야겠어.
- ⑤ 화려한 음향 효과나 조명을 쓰기보다는 관객들이 편안하게 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겠어.

9. (나)에서 '여자'를 설득하기 위한 '남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객에게 동의를 구하여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자신의 부정적 면모를 정면으로 고백하고 있다.
- ③ 빈털터리임을 강조하여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다.
- ④ 계속적인 질문으로 상대가 공감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 ⑤ 빌린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자신의 결혼관을 제시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남자'가 등장하여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한다.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터리이다.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강한 하인을 빌린다.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한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청혼하고, '여자'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란다.

하인, 또다시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넥타이를 풀어낸다.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 힘껏 저항하지만 하인의 역센 힘을 당해 내지 못한다.

결국은 빼앗기고 하인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넥타이를 가지고 나간다. 여자는 두 남자의 다툼에 놀란다.

여자 : 왜들 그러시죠?

남자 :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다.)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여자 :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네에?

남자 :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깐요. 안심하십시오. (중략)

여자 :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덤이예요, 덤.

남자 : 덤?

여자 : 네. 왜 조금 더 주는 것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지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엔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덤, 덤…… 아버지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뽕소닐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 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남자 : 덤, 덤, 덤.

여자 :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질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게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덤, 혹시 그 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중략) 사실 이런 덤 이야긴 처음인 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속에 덮어 두었죠. 그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예요. (중략)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 준다.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다.

남자 :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웬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린다.) ㉢덤,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여자 : 거기서 뭘 하시죠?

남자 : (계속 혼잣말처럼) 덤, 난 당신을 사랑해……. (중략)

여자 : 뭘 하고 계세요?

남자 : 덤……. 저어,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 하필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세요?

여자,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사이.

하인,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두려워지는 남자, 그 꼴을 여자에겐 보이고 싶지 않다.

남자 : 눈을 감아요.

여자 : 감고 있는 걸요, 이미. (중략)

하인, 남자에게 덤벼든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 간다.

남자 :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여자 :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다.)

남자 :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어릴 수 없이 많은 그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 되지요.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깐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 주고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 봤었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연했습니다. 덤, 덤, 덤…….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덤, 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여자 :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여자 :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남자 :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지요.

여자 :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남자 : 내 것이라곤 없습니다.

여자 : (충격을 받는다.)

남자 : 모두 빌린 것들뿐이었지요. 저기 두둥실 떠 있는 달님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하늬바람도, 그리고 어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미소를 짓고) 잠시 빌린 겁니다. (중략)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는다. 그 구두발로 차 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남자 :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여자 : …… 아, 어찌면 좋아? (중략)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 나간다.

남자 : 잠깐만요. 덤…….

여자 : (멈칫 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남자 :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중략)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 봐요.

여자 :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남자 :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줘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걸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깐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눈동

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 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남자 :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게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뭘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 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남자, 하인의 구두발에 걸어챈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여자 : 그만해요!

남자 :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여자 :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 이강백, 「결혼」

10. 윗글의 갈래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사 갈래와 달리 인간의 삶과 갈등을 형상화하는 갈래이다.
- ② 해설, 대사, 지시문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지시문은 생략되기 마련이다.
- ③ 지금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현장성이 강하다.
- ④ 무대에서 상연되기 때문에 장면 구현의 제약이 다른 갈래에 비해 덜하다.
- ⑤ 관객에게 사건의 전개 양상을 직접 보여주기보다 요약적 설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11.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여자의 아버지와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남자도 여자를 떠날 것을 암시한다.
- ② ㉡ : 빌린 것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난다.
- ③ ㉢ : 여자와 관객 모두에게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된 대사이다.
- ④ ㉣ : 남자의 헌신적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미소를 짓고 있다.
- ⑤ ㉣ : 여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이므로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뜻이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의 '하인'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하인, 그는 빌린 물건들로 한 남자를 치장한다. 그의 손엔 거의 쟁반만큼이나 커다란 회중시계가 들려져 있는데 실제로 하인은 가끔 그것을 쟁반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몹시 꼼꼼하게 시간을 재는 그의 모습은 꼭 그럴 필요는 없겠으나 무뚝뚝하고 건장했으면 한다.

- ① 작가가 말하는 소유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역할이다.
- ② 무뚝뚝하고 건장한 모습으로 긴장감과 위압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 ③ 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심리가 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 ④ 시간에 맞춰 물건을 회수하는 역할을 잘 보여주기 위해 커다란 회중시계를 사용한다.
- ⑤ 몹시 꼼꼼하게 시간을 재는 모습을 통해 이 작품에서 시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무대인 응접실 안으로 '남자'가 등장하여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한다.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터리이다.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린다.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한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청혼하고, '여자'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당황한다. 하지만 부자인 남자에게 호감을 느낀 여자는 대화를 계속한다. 한편 하인은 시간이 지나자 기계처럼 넥타이를 회수해 가고, 이를 본 여자는 놀라서 무슨 사정인지 묻는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관객석으로 가서 넥타이를 빌려 착용한 후 여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얘기를 이어간다.

여자 :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뭘지 아시겠어요? 덤이에요, 덤.

남자 : 덤?

여자 : 네. 왜 조금 더 주는 것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지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엔 뭘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덤, 덤…… ㉠아버진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뽕소닐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 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남자 : 덤, 덤, 덤.

여자 :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질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겐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중략>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 준다.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다.

남자 :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린다.) 덤,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여자 : ㉢거기서 뭘 하시죠?

남자 : (계속 혼잣말처럼) 덤, 난 당신을 사랑해……

<중략>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여자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남자 :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지요.

여자 :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남자 : 내 것이라곤 없습니다.

여자 : (⊗)

남자 : 모두 빌린 것들뿐이었지요. 저기 두둥실 떠 있는 달님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하늬바람도, 그리고 어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미소를 짓고) 잠시 빌린 겁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는다. 그 구두발로 차 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남자 :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여자 : …… 아, 어찌면 좋아?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

여자 :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 손을 든…….

남자 : 글썽 그건……. (탁상 위의 사진들을 끌어 모아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보여 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 장입니다. 젊을 때 한 장, 그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할 겁니다.

여자 : 이해 못하실 걸요, 어머니. (슬프고 낙담해서 천천히 사진들을 핸드백 속에 담는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 나간다.

남자 : 잠깐만요, 덤…….

여자 : (멈칫 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남자 :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여자 : (침묵.)

남자 :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 봐요.

여자 :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남자 :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줘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걸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 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 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남자 :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뭘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 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⑨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남자, 하인의 구두발에 걸어챈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여자 : 그만해요!

남자 :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여자 :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남자 :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두발에 차이기 전에!

여자 :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쑥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던데…….

남자 : 자아, 빨리 갑시다!

여자 : 네, 어서 가요!

- 막 -

13. 윗글에서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수락한 이유를 <보기>와 같이 설명하려고 할 때, Ⓐ에 적합한 내용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보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여자’의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여자는 남자가 부자인 걸 알고, 남자가 소유한 물질이 영원하리라 생각해서 남자에게 호감을 느꼈다.
↓	
남자의 청혼을 수락할 때	Ⓐ

<조건>

- “여자는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형식의 한 문장으로 쓸 것.

14. 윗글의 극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㉔의 까닭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자를 속이는 미안함
- ② 여자의 처지에 대한 실망
- ③ 남자의 행동에 대한 반성
- ④ 여자의 상황에 대한 연민
- 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15. <보기>에 빗대어서 윗글의 ‘남자’의 행동을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㉔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흑 빌려서 타는 데, 여윌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으나, ㉕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㉖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㉗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㉘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 이곡, ‘차마설(借馬設)’

- ① ㉔는 남자가 저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물건을 빌리는 행동과 유사하다.
- ② ㉕는 남자가 빌린 물건을 자랑하며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비슷하다.
- ③ ㉖는 남자가 정해진 시간이 되자, 빌린 물건을 하나씩 돌려주는 일에 대응한다.
- ④ ㉗는 남자가 물건을 빌려서 여자의 호감을 얻고 결혼하고자 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 ⑤ ㉘는 남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참된 소유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장면에 빗대어 볼 수 있다.

16. ㉔와 같이 관객이 극에 참여하도록 구성한 작가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작가의 쓴 희곡의 원본대로 완벽한 연출이 가능하다.
- ② 배우와 관객 간의 대화를 통해 소통을 도모할 수 있다.
- ③ 관객들을 극 중 상황에 더욱 몰입하도록 이끌 수 있다.
- ④ 관객의 물건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
- ⑤ 극의 상황과 주제 의식을 관객에게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다.

17. 윗글의 소재 중, 극의 긴장감을 가장 고조시키는 것은?

- ① 이야기책 ② 넥타이
- ③ 경고문 ④ 사진 석 장
- ⑤ 큰 구두 한 짝

18. 윗글을 연극으로 상연하려고 할 때, 연출가가 ㉠ ~ ㉥에서 배우에게 요구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여자는 원망의 감정 없이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 ② ㉡에서 여자는 남자의 앞뒤 대사를 못 들은 척 연기하세요.
- ③ ㉢에서 하인은 남자에 대한 연민이 전달되도록 연기하세요.
- ④ ㉣에서 여자는 침묵하되, 실망하고 충격 받은 표정을 지으세요.
- ⑤ ㉤에서 남자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진심을 담아 연기해주세요.

19. 윗글의 내용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단막극인 이 작품은 무대 공간인 응접실 안으로 제한된다. 무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물들의 행동과 대화로 이야기가 형상화되기도 하지만, 무대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직 인물의 언어적 표현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 ① 여자의 아버지가 여자가 태어나자 달아난 일
- ② 여자가 부모님 이야기를 남자에게 들려준 일
- ③ 남자가 관객에게 빌린 넥타이를 되돌려 준 일
- ④ 하인이 남자에게 경고문이 담긴 봉투를 건넨 일
- ⑤ 여자가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 한 일

20. 윗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것은?

- ① 무대와 객석을 엄격히 구분해 연극의 미적 가치를 구현한다.
- ② 하인의 중재 역할에 의해 다른 등장인물의 태도가 변화한다.
- ③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인용해 설득을 위한 근거로 제시한다.
- ④ 대사보다는 그 지시문을 활용해 인물의 생각과 심리를 드러낸다.
- ⑤ 인물 명을 보통 명사로 제시하여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 ‘남자’가 등장하여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한다.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터리이다.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강한 하인을 빌린다.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한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청혼하고, ‘여자’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란다.

남자 : 정신 좀 드십니까?

여자 : 여전히요.

남자 : (미소를 짓고) 익숙해지면 좀 나를 겁니다.

여자 :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리라곤 꿈도 못 꿔요. 전보에 알려 주신 대로 찾아왔더니……,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저택이잖겠어요? 문 앞에서 저는요, 한참이나 망설였어요.

남자 : 어려워 마시고 그냥 들어오실걸.

여자 : 아뇨. 황홀해서 망설였던 거예요.

남자 : (미소를 짓고) 아, 그랬어요?

여자 : 네. 당신의 전보를 받았을 때요, 저의 어머니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어서 가 봐라. 가 봐서 빈털터리 같거든 아예 되돌아보고 부자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

남자 : 그래 당신은 뭐라 했습니까?

여자 : 알았어요, 어머니. 오른손을 들고서 그렇게 대답했죠.

남자 : 내 원 참! 오른손을 들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셨군요?

여자 : 그렇죠!

(나) 하인, 또다시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넥타이를 풀어낸다.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 힘껏 저항하지만 하인의 역센 힘을 당해 내지 못한다.

결국 빼앗기고 하인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넥타이를 가지고 나간다. 여자는 두 남자의 다툼에 놀란다.

여자 : 왜들 그러시죠?

남자 :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다.)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여자 :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네에?

남자 :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이

니까요.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계면쩍은 듯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그건 그렇고요, 당신 어머니 펍 재미난 분이시군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시키셨다는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우시든가…… 왜 그렇게 쳐다만 보십니까?

여자 : 넥타이를…….

남자 : 그것엔 관심 없습니다.

여자 : 왜 빼앗기셨죠? (옆에 와 부동자세로 서 있는 하인을 훑쳐보며) 그것도 난폭하게.

남자 : 그렇지요.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겐 난 전혀 관심 없어요. 오히려 당신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신지……

여자 : 하지만요, 저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남자 :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그야 되돌려 받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인에게 큰 소리로) 여봐, 가져 와! (묵묵부답한 하인. 까치발을 달고 일어나서 그의 귀에 속삭인다.) 여봐! 그 가져간 것 오 분만 더 빌려주게.

하인 : (대답이 없다.)

남자 : 딱 오 분만 더. 사정해도 안 되겠나. 응?

하인 : (반응이 없다.)

남자 : 좋아, 좋다구.

여자 : 뭐래요, 하인이?

남자 : 네, 날더러 잘해 보라고 그러니까.

남자,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 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

남자 : 물론 그래요, (속상하다는 듯이)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 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야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속 좀 상합니다만, 그야 뭐 그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 보나 마나겠고…… 저어,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오 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오 분만. 더 이상은 여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겠습니까? (남성 관객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려 착용하며)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 온 건지는.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 드리겠어요. 자아,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난 이만.

(다)

여자 :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남자 : 놀랐습니다, 갑자기.

여자 : 네,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덤이에요, 덤.

남자 : 덤?

여자 : 네. 왜 조금 더 주는 것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지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엔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덤, 덤…… 아버지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닐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 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남자 : 덤, 덤, 덤.

여자 :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질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게겐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덤, 혹시 그 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남자 : 덤, 덤, 덤…….

여자 : 어머니에게 안됐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게 좋아요. 왠지 흥분하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나아 키운다는 건…… 그만둘까요, 제 이야기?

남자 : 덤, 더 해 주세요.

여자 :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버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고요. 전 어머니 말을 이해해요.

남자 : 나도 알 만합니다.

여자 : 고마워요.

남자 : 월요, 고맙기는요. (중략)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 준다.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다.

남자 :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린다.) 덤,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여자 : 거기서 뭘 하시죠?

남자 : (계속 혼잣말처럼)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라)

남자 : 잠깐만요, 덤…….

여자 : (멈칫 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남자 :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여자 : (침묵)

남자 :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 봐요.

여자 :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남자 :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줘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젠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깐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남자 :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쩡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뭘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 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남자, 하인의 구두발에 걸어챌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여자 : 그만해요!

남자 :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여자 :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구 사랑하겠어요!

남자 :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두발에 차이기 전에!

여자 :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썽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던데…….

남자 : 자아, 빨리 갑시다!

여자 : 네, 어서 가요!

- 막 -

- 이강백, 결혼

21. 윗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갈래이다.
- ② 인물의 대화와 지시문을 통해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갈래이다.
- ③ 인간의 행위와 사건을 서술자의 개입 없이 직접 보여주는 갈래이다.
- ④ 배우들의 연행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갈래이다.
- ⑤ 작가의 성찰이나 깨달음을 현재화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갈래이다.

22. 윗글을 읽고 난 후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유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
- ② 결혼의 조건이 무엇이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어.
- ③ 등장인물을 익명의 ‘남자’, ‘여자’로 지칭한 것은 그들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말하려고 한 것이겠군.
- ④ 특정한 갈등이나 사건 없이 무대 장치나 소품 등을 희극적으로 과장하여 현대 사회의 부조리한 결혼 문제를 풍자하고 있군.
- ⑤ 정해진 시간에 물건을 되가져 가는 행동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인’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군.

23. <보기>는 윗글의 처음 부분에 쓰인 ‘작가 노트’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응접실 또는 아담한 소극장(小劇場) 같은 곳, 그런 실내(室內)에서 공연하기 알맞도록 썼다. 음악으로 비교한다면 실내악(室內樂) 같은 것이다.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고 별다른 조명이나 효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다. 이 연극의 등장인물, 하인은 그들로부터 잠시 모자라든가 구두, 넥타이 등을 빌려야 한다. 이 빌린 물건들을 단순히 소도구로 응용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이 작품을 검토하면 알겠으나, 이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 준다는 것엔 더 깊은 의미가 있고 이 연극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 ① 이 작품이 공연되는 실제 무대에는 별다른 무대 장치가 없겠군.
- ② ‘남자’가 관객에게 빌린 넥타이는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어야겠군.
- ③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렸다 되돌려 주는 행위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었군.
- ④ 극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객석에 관객 역할의 배우를 앉혀 두어야겠군.
- ⑤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은 무대와 객석과의 거리를 좁혀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기 쉽도록 하려는 의도였군.

24. ‘남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상황을 숨기고 있다.
- ② ‘여자’의 태도를 비난하여 ‘여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③ ‘여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관객’을 증인으로 삼고 있다.
- ④ ‘여자’의 행동을 예측하여 자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⑤ ‘여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하인’과의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남자’가 등장하여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한다.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터리이다.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린다.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한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청혼하고, ‘여자’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란다. ‘하인’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기계적인 동작으로 남자의 소지품을 하나씩 빼앗아간다. ‘남자’는 ‘덤’이라는 ‘여자’의 별명을 공통분모로 삼아 소유와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윽고 남자는 자신이 빈털터리임을 고백한다.

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남자 :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 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⑦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남자, 하인의 구둣발에 걸어챌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여자 : 그만해요!

남자 :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여자 : 그래요! 당신 아니구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남자 :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둣발에 차이기 전에!

여자 :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쑥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던데…….

남자 : 자아, 빨리 갑시다!

여자 : 네, 어서 가요!

25. 윗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삶과 갈등을 형상화하는 문학 갈래이다.
- ② 무대 장치, 등장인물의 심리, 표정 등을 해설을 통해 설명한다.
- ③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사건의 전개 양상을 직접 드러낸다.
- ④ 이야기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서사 갈래보다 현장성이 강하다.
- ⑤ 무대에서 상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장면 구현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26.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당신과 결혼하여 사는 동안 진실한 사랑을 다하겠다.
- ② 물건을 빌리면 빌려준 사람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 ③ 물질적 가치는 하찮은 것이므로 오직 정신적 사랑만이 중요하다.
- ④ 지금껏 모든 것을 빌려서 지냈지만 이제는 당신을 소유하고 싶다.
- ⑤ 비록 소유한 것이 없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27.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자는 남자가 빈털터리임을 알고 내적 갈등이 심하군.
- ② 관객의 참여를 통하여 집중도를 높이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군.
- ③ ‘하인’은 희곡의 전개과정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군.
- ④ 여자는 남자가 말하는 소유와 사랑의 의미에 공감하고 있군.
- ⑤ 이 작품은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관객의 물건을 이용하고 있군.

28. 이 글에 나타난 ‘소유’의 의미를 포함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완결된 문장으로 쓰시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해설] ② 극갈래로, 서술자 없이 대화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① 관객의 눈 앞에서 사건을 바로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사건을 표현한다.

2) [정답] ③

[해설] ③ 소유의 본질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된 남자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이다.

3) [정답] ④

[해설] ④ 물리적 폭력에 맞서는 대응의지는 작품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4) [정답] ①

[해설] 이 글은 극 갈래로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쓴 글이다. 이 갈래는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5) [정답] ④

[해설] 남자는 사랑도 빌린 것이므로 여자를 평생 아끼겠다고 말하고 있다. 여자는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남자'의 말에 공감했고 '남자'가 부자는 아니지만,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실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청혼을 수락한 것이다.

6) [정답] ④

[해설] 이 작품은 특별한 무대장치가 없고 등장인물이 관객의 물건을 빌리거나 관객과 소통함으로써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는 관객의 집중도를 높이고 극의 상황과 주제를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7) [정답] ④

[해설] <보기>의 글쓴이는 인간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남에게 빌린 것으로 진정한 소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충고가 가장 적절하다.

8) [정답] ④

[해설] 진리를 깨달은 남자는 위압감을 주는 하인 앞에서 여자를 설득하기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절규하듯이 설득하고 있다.

9) [정답] ③

[해설] 남자는 이 세상 모두가 빈털터리임을 강조하고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지 않다.

10) [정답] ③

[해설] ① 서사 갈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과 갈등을 형상화한다. ② 지시문은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행동을 통해 구현된다. ④ 무대에서 상연되기 때문에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제약이 다른 갈래에 비해 크다. ⑤ 관객에게 사건의 전개 양상을 대사나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다.

11) [정답] ⑤

[해설] ① 여자의 아버지와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공통점을

보여주며 여자는 사기꾼인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남자 또한 미워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② 여자의 처지에 대한 연민, 여자에 대한 미안함 등의 이유이다. ③ 여자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관객에게는 들리는 것으로 약속된 대사인 방백이다. ④ 여자는 아직 남자가 부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

12) [정답] ③

[해설] 하인은 등장인물과 대화를 하지 않고, 시간의 경과를 알리며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빌린 물건을 회수하여 극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3) [정답] 여자는 남자가 말한 소유의 본질에 대해 공감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해설] 여자는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면적 가치가 중요함을 깨닫고 빌리는 동안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남자의 말에 설득되었다.

14) [정답] ②

[해설] 본문에서 '남자'는 '여자'의 고백을 듣고 '여자'에 대한 연민과 미안함으로 슬픈 마음이 든 것이다.

15) [정답] ③

[해설] ⑥는 소유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서술로, '남자'가 빌린 물건을 하인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과 대응된다 할 수 있다.

16) [정답] ①

[해설]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는 일은 넥타이를 하고 온 관객이 없는 등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작가가 쓴 희곡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17) [정답] ⑤

[해설] '하인'이 큰 구두 한 짝을 신고 구두발로 '남자'를 차 낼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극의 긴장감을 조성시킨다.

18) [정답] ③

[해설] '하인'은 감정을 표시하는 일 없이 기계적으로 물건을 시간에 맞춰 회수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19) [정답] ①

[해설] '여자'의 아버지가 '여자'가 태어나자 떠난 일은 극이 진행되는 현재에서 한참 전의 이야기로 '여자'의 대사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20) [정답] ⑤

[해설] 윗글은 특별한 이름이 없이 '남자', '여자', '하인'으로 표현해 그들의 모습과 현대 사회의 모든 남녀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드러내며 소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현대 사회의 모든 남녀에게도 공감될 수 있음을 표현하였다.

21) [정답] ⑤

[해설] 윗글은 극 갈래로 서술자 없이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로 사건 전개 및 갈등 양상을 현재화해서 보여주는 갈래이다.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 등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22) [정답] ④



[해설] 윗글은 특별한 무대 장치나 소품 없이 관객을 극에 끌어 들여 소유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다.

23) [정답] ④

[해설] '남자'는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릴 때 관객석을 돌아다니다 빌린다. 또한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림으로써 극에 참여하게 해 주제 의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따라서 관객 역할을 하는 배우를 미리 앉혀 두고 그 배우에게 빌리는 것은 연출 의도와 맞지 않는다.

24) [정답] ③

[해설] '남자'는 '여자'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넥타이'를 빌린 관객에게 아껴 쓰고 깨끗하게 돌려 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라 말하며 자신이 그렇게 여자를 아꼈것임을 밝히고 있다.

25) [정답] ②

[해설] 등장 인물의 심리와 표정은 대사와 행동을 통해 제시된다. ① 극 갈래와 서사 갈래 모두의 특징이다. ④ 희곡과 같은 극 갈래는 이야기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전달하여 서사 갈래보다 현장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6) [정답] ①

[해설] 남자는 관객을 증인으로 내세워 여자에게 이 세상에서 여자를 빌리는 동안 아끼고 사랑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즉, 결혼하여 사는데 여자에게 진실한 사랑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④ 소유의 본질은 빌린 것이므로 여자를 소유하고 싶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7) [정답] ①

[해설] 이 글에서 남자가 빈털터리인 것을 알게 된 후 여자가 심한 내적 갈등을 겪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리고, 직접 관객에게 말하는 것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남자가 말하는 소유와 사랑의 의미에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8) [정답]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두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어야 한다

[해설] '남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을 때 가장 원하는 사랑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한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